



2016년 한 학기 동안 연구한 “스몰베이직 프로그램 해석기 설계 및 구현”을 주제로 첫 발표를 하게 되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 파크에서 동계학술발표회가 열렸는데, 아침 일찍부터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평창으로 이동하였다. 가는 도중 계속 발표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모자란 것 같았다. 포스터 발표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었고, 시험기간이 겹쳐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에 긴장도 되었다. 하지만 이런 학술 발표를 준비하고 직접 발표해보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포스터를 부착하고 나서 평가위원이 왔고 2분 내에 준비했던 많은 내용들을 빼고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평가위원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고 갔으며, 그 뒤로는 그냥 훑어보고만 가다 보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포스터 발표도 많았지만, 모든 주제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다. 다음 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발표를 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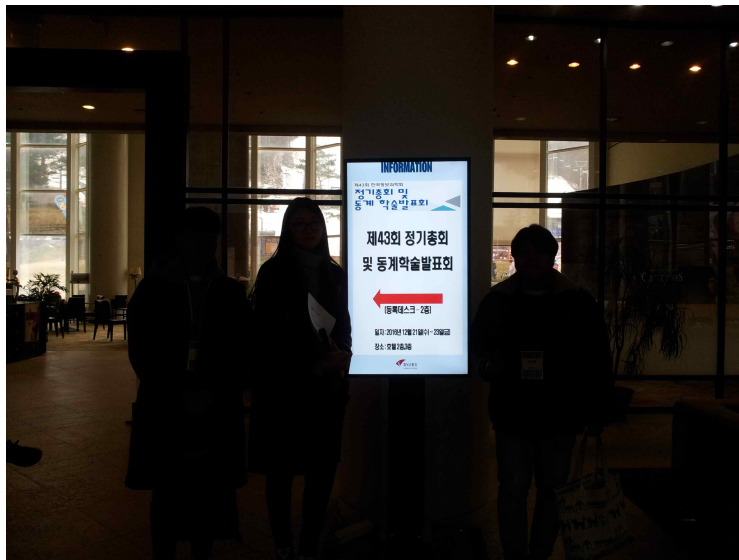
동계학술발표회에서는 포스터, 논문 발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Tutorial 형식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준비하며 자주 사용했던 GitHub를 주제로 한 튜토리얼 형식의 세션이었는데, 발표와 실습을 동반한다기에 매우 관심이 가서 들어보았다. 교수님과 함께 들으며, GitHub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많은 명령어를 사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항상 GUI를 이용해서 사용하던 GitHub였는데, CLI를 이용해서 GitHub를 경험해보니 매우 새로웠다. 학술대회에서 이런 세션들을 통해 해당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의 발표를 통해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제43회 동계학술발표회 Trip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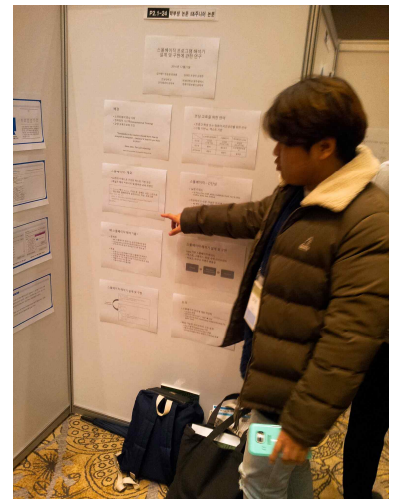
일시 : 2016.12.21 ~ 2016.12.22

장소 : 강원도 휘닉스파크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134270 김지용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최광훈 교수님과 승완이형, 가영이와 함께 동계학술발표회에 참석하였다. 우리가 발표한 논문의 주제는 "스몰배이직 프로그램 해석기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이다. 난생 처음 학회라는 이름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칸막이처럼 생긴 부스에 논문을 게시하고 사람들이 보고, 읽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는 분위기가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어색했다. 교수님께서 한번 쪽 둘러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른 학생들이 게시해 놓은 논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서 읽어보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일반 논문도 있었고, 대략 조금은 이해가 되는 학부생이 작성한 것, 심지어 어린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것도 있었다. 또 관심이 생기는 흥미로운 주제도 있었는데, 막상 질문을 하자니 쑥스럽기도 하고, 머뭇거리져서 게시된 글만 읽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설명을 엿듣기만 하였다. 다음에 또 학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질문도 하고 해야겠다. 또 늦잠을 자는 바람에 튜토리얼을 듣지 못했는데, 튜토리얼 같은 것도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굉장히 값진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하였고, 다음에는 설명하는 척이 아니라 가영이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연구에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한국정보과학회 - 동계학술발표회'를 다녀와서

134257 정승완

'스몰베이직 프로그램 해석기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주최하는 동계학술발표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학부생 3학년 김가영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다. 학술발표회 기간이 기말 끝나고 바로 시작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텐데 발표를 잘 마무리했던 것 같다. 이번 발표회는 발표자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직접 와서 이런 발표회를 지켜보니 발표현장이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을 느꼈고 전공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간단한 주제의 연구부터 학부생을 넘어 일반부의 복잡한 연구까지 한번 둘러보았는데 연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런 주제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이번 동계학술발표회에 참가해서 시간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해오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어서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고 전공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이나마 더 넓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혹시 다음번에 또 학술발표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고 싶다.

